

## 우리나라 중국어문학 교육에 관한 의식 조사연구

權 應 相\*\*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
| II. 중점교육분야에 관한 의식  | 중시분야에 관한 상호인식  |
| III. 사회수요분야에 관한 의식 | V. 맺음말         |

### I. 머리말

이제 중국어문학과는 명실 공히 우리나라 어문학분야의 선두주자로 부상하여 영어영문학과 함께 양강 체제를 구축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1992년 중국과의 수교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중국어문학 및 중국관련 학과는 2001년 현재 140여 개가 넘는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시대와 사회가 요구한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또 그 성장에 걸 맞는 내실 있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어문학 교육에 관한 근자의 여러 논의들은 이러한 중국어문학의 양적 팽창과 함께 동반된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현상이다. 지난 해 5월 한국 중국어문학회가 주관하여 열렸던 '중국어문학 연구·교육자의 역할과 지향점'이라는 학술대회도 이 현상의 하나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필자 역시 이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중국고전문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sup>1)</sup>라는 제목으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중국문학》 제 40집 (2003.12).

로 고전문학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들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필자는 이 작업을 교수와 학생의 설문을 통하여 진행했는데, 본고는 그 설문항목 가운데 중국어문학 교육의식에 관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우리나라 중국어문학의 교육의식에 관한 전반적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필자는 설문조사의 대상을 교수/재학생/졸업생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교육자/피교육자/사회의 관계로 보았기 때문이다. 교수들과 졸업생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메일을 통하여였으며, 재학생은 대구지역 4개 대학의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수합된 설문지는 교수 94장, 재학생은 238장, 졸업생 33장이다. 특히 중국어문학 교육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자들에게 ① 고전문학, ② 현·당대문학, ③ 중국어회화, ④ 중국어문법 및 작문, ⑤ 성운학, 훈고학, 문자학 등, ⑥ 중국정치 및 경제, ⑦ 중국사회 및 문화, ⑧ 중국역사 및 철학, ⑨ 연극, 영화, 서화 등 중국예술 등의 아홉 개의 영역을 선택항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질문자의 답변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유사영역별로 묶어 유형화 한 것이다. 그리고 세 주체의 중점교육 분야에 관한 인식, 사회수요분야에 관한 인식, 중시분야에 관한 상호인식 등을 알아보았다.

이처럼 중국어문학 교육의 주체자인 교수와 학생의 의식은 물론, 사회를 대표하는 졸업생들의 의식도 고찰함으로써 교육자와 피교육자, 학교와 사회 등의 상호 의식을 고찰하고 그 차이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이는 논의를 외부까지 확대시켜 향후 중국어문학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 II. 중점교육 분야에 관한 의식

### 1. 교수

필자는 교수들에게 중문학과의 교육방향에 관한 질문으로서, 원론적인

교육목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재 우리나라 중국어문학과 및 관련학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게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순위	분야	중점교육분야	응답비율	순위도
1	③	중국어회화	146/89	1.64
2	④	중국어문법 및 작문	264/85	3.10
3	⑦	중국사회 및 문화	350/89	3.93
4	①	고전문학	364/86	4.23
5	②	현· 당대문학	365/84	4.34
6	⑧	중국역사 및 철학	470/83	5.66
7	⑥	중국정치 및 경제	525/82	6.40
8	⑤	성문학, 훈고학 등	583/81	7.19
9	⑨	연극, 영화 등 예술	662/83	7.97

이상의 결과를 보면 교수들은 중국어 관련 과목을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문학관련 과목도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중국사회 및 문화가 고전문학이나 현·당대 문학보다 더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관련 학과가 대부분 어학과 문학을 병렬로 놓은 중어중문 혹은 중국어문학과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중국에 대한 폭넓은 이

2) 표의 응답비율은 ‘응답순위의 합 / 응답자 수’이며 순위도는 그에 따른 우선 순위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1위를 차지한 ‘중국어회화’의 응답비율은 ‘146/89’로서, 이는 89명의 교수가 응답을 했고, 그 응답 순위의 합이 146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최우선 순위 ‘1’을 기준으로 볼 때 ‘1.64’ 정도의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것으로, 이 순위도는 결국 응답자의 대부분이 1위 내지 2위로 응답했다는 의미이다. 응답자의 수가 항목마다 다른 것은 응답자가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순위 자체를 표기하지 않아서 응답자 수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하 <표>도 모두 이와 같다.

해를 위한 사회 문화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 2. 재학생

필자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점교육분야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현재 우리나라 중국어문학과 및 관련학과의 재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표 2>

순위	분야	중점교육분야	응답비율	순위도
1	③	중국어회화	392/238	1.64
2	⑦	중국사회 및 문화	782/238	3.28
3	④	중국어문법 및 작문	861/238	3.61
4	⑥	중국정치 및 경제	948/238	3.98
5	⑧	중국역사 및 철학	1139/238	4.78
6	②	현· 당대문학	1464/238	6.15
7	⑨	연극, 영화 등 예술	1484/238	6.23
8	①	고전문학	1541/238	6.47
9	⑤	성운학, 훈고학 등	1916/238	8.05

재학생 역시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어회화를 가장 먼저 꼽았고, 교수들이 2위로 답변한 중국어문법 및 작문이 중국사회 및 문화에 밀려 3위로 내려왔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교수들이 4위와 5위로 답했던 고전문학과 현· 당대문학이 각각 8위와 6위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특히 고전문학의 급격한 추락은 학생과 교수들 사이의 중점교육분야에 대한 시각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위의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문학과목보다는 오히려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철학 같은 과목을 더

욱 중점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어회화를 바탕으로 중국전반에 걸친 폭넓은 지식을 교육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업을 염두에 사회적 요구에 근거한 것이라 하겠다

### 3. 졸업생

필자는 사회가 바라는 중점교육분야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에 진출해 있는 중문학과 졸업생들에게 “현재 우리나라 중국어문학과 및 관련학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해야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표 3>

순위 \ 분야	중점교육분야	응답비율	순위도
1	③ 중국어회화	39/32	1.21
2	⑦ 중국사회 및 문화	93/32	2.90
3	④ 중국어문법 및 작문	105/32	3.28
4	⑧ 중국역사 및 철학	107/32	3.34
5	⑥ 중국정치 및 경제	128/32	4.00
6	① 고전문학	209/32	6.53
7	② 현· 당대문학	209/32	6.53
8	⑨ 연극, 영화 등 예술	224/32	7.00
9	⑤ 성운학, 훈고학 등	248/32	7.75

졸업생 역시 중국어회화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중국사회 및 문화, 중국어문법 및 작문의 순으로 답하여 재학생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지 주목할만한 것은 재학생이 8위로 꼽았던 고전문학이 6위로 올라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학생들이 기피하는 고전문학과목이 졸업 후 사회에서는 재학생이 느끼는 만큼 무용한 것은 아니라는 조금의 실마리로 여겨도 좋을 것 같다. 실제로 교수들에게 고전문학과목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더

니, ‘매우 필요하다’ 34명, ‘어느 정도 필요하다’ 54명, ‘학부수준에서는 별 필요가 없다’ 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92%가 매우 필요하거나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학생들도 고전문학 과목에 대해 유익하고 흥미 있게 느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그렇다’ 54명, ‘매우 그렇다’ 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sup>3)</sup>

이상의 중점교육분야에 관한 결과를 보면 중국어회화와 문법 및 작문에 관해서는 교수, 재학생, 졸업생 모두 가장 우선적으로 꼽은 분야이다. 그런데 나머지 분야를 보면 교수와 학생(재학생과 졸업생) 사이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즉, 교수는 사회 및 문화, 고전문학, 현·당대문학 등을 차순위로 놓은 반면 학생들은 사회 및 문화, 정치 및 경제, 역사 및 철학 등을 차순위로 놓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수들은 어학과목을 제외하고는 문학과목을 중점교육분야로 꼽은 반면에 학생들은 정치 경제나 역사 철학을 중점교육분야로 꼽은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 속에서도 교수와 학생 모두 어학 다음으로 꼽은 분야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교육방향에 대한 상호 공통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것은 바로 사회 및 문화 분야로서, 교수와 학생 모두 어학과 함께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할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Ⅲ. 사회수요 분야에 관한 의식

#### 1. 교수

교수의 사회수요 분야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교수들에게 “중국 어문학과 및 관련학과의 재학생들이 졸업 후 직장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

3) 줄고, <우리나라 중국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한국중국어문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6쪽.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4>

순위	분야	사회수요분야(교수)	응답비율	순위도
1	③	중국어회화	118/91	1.29
2	④	중국어문법 및 작문	234/84	2.78
3	⑦	중국사회 및 문화	281/88	3.19
4	⑥	중국정치 및 경제	312/85	3.67
5	⑧	중국역사 및 철학	425/78	5.44
6	⑨	연극, 영화 등 예술	490/80	6.12
7	②	현· 당대문학	498/78	6.38
8	①	고전문학	512/78	6.56
9	⑤	성운학, 훈고학 등	639/77	8.29

이처럼 교수들은 회화나 문법, 작문, 그리고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철학 등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분야라고 답하고 있다. 교수들의 이러한 답변은 어느 정도 현실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중국관련 학과 대부분의 교수들은 문학을 전공했다. 자신들의 전공은 사회적으로 매우 수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현재 중문학과 교수들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특히 수요자중심교육이 대학교육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현실을 받아들이자니 대학에서의 입지가 없어져 버리는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다.

## 2. 재학생

재학생들의 사회수요분야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에게 “졸업 후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lt;표 5&gt;

순위	분야	사회수요분야(재학생)	응답비율	순위도
1	③	중국어회화	324/238	1.36
2	⑥	중국정치 및 경제	721/238	3.02
3	⑦	중국사회 및 문화	753/238	3.16
4	④	중국어문법 및 작문	921/238	3.86
5	⑨	연극, 영화 등 예술	1267/238	5.32
6	⑧	중국역사 및 철학	1272/238	5.34
7	②	현· 당대문학	1659/238	6.97
8	①	고전문학	1712/238	7.19
9	⑤	성운학, 훈고학 등	2024/238	8.50

교수들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교수들이 2위로 답했던 문법과 작문이 4위로 밀려나 있지만 6위 안에 든 항목과 6위 밖에 든 분야가 모두 동일하다.

### 3. 졸업생

사회수요분야에 관한 사회 자체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졸업생들에게 “졸업 후 귀하에게 가장 필요했던 분야는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lt;표 6&gt;

순위	분야	사회수요분야(졸업생)	응답비율	순위도
1	③	중국어회화	60/33	1.81
2	⑦	중국사회 및 문화	104/33	3.15
3	④	중국어문법 및 작문	117/33	2.54
4	⑥	중국정치 및 경제	122/33	3.69
5	⑧	중국역사 및 철학	167/33	5.06

6	⑨ 연극, 영화 등 예술	209/33	6.33
7	① 고전문학	212/33	6.42
8	② 현· 당대문학	218/33	6.60
9	⑤ 성운학, 훈고학 등	280/33	8.48

이상 졸업생의 사회수요분야에 관한 인식도 교수나 재학생들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수요분야에 관한 인식은 교수, 재학생, 졸업생 모두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사회적 수요가 그러하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의 본질에 따라 진리추구의 전당으로 남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고 할 것이다.

냉철히 따져봐야 할 것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매우 막연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응답자들 대부분이 개연성만을 가지고 답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실제로 중국 관련 업무를 하는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 그 직장의 담당업무에 맞는 전문지식은 일하는 과정에 사회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논리가 설득력을 가진다면 대학은 세부적인 지식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상위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를 가르치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사회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회인에게 요구하는 더 큰 덕목일 것이다.

대학의 본질과 그 사회적 기능을 생각해볼 때 당장 계산되지 않는 그런 것들 - 그것을 '진리'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 을 무시해버리면 대학의 존재의미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사회적 수요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그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

한 중국어문학 전공자의 사회수요적 내용이 도출된다면 그것을 통해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재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가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정립하는 논의의 단초로써 기능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IV.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중시분야에 관한 상호인식

##### 1. 교수의 학생관심분야에 관한 인식

필자는 교수들에게 학생들이 중시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중국어문학과 및 관련학과의 재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표 7>

순위	분야	학생관심분야(교수인식)	응답비율	순위도
1	③	중국어회화	113/94	1.20
2	④	중국어문법 및 작문	259/81	3.19
3	⑦	중국사회 및 문화	316/89	3.55
4	⑥	중국정치 및 경제	354/81	4.31
5	⑨	연극, 영화 등 예술	363/82	4.42
6	②	현· 당대문학	372/79	4.70
7	⑧	중국역사 및 철학	516/79	6.53
8	①	고전문학	512/77	6.64
9	⑤	성문학, 훈고학 등	698/78	8.94

이 결과는 사회수요분야와 비슷한 결과이다. 다만 문법과 작문의 순위가 4위에서 2위로 달라졌을 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문법과 작문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 여겨진다.

2. 재학생의 교수관심분야에 관한 인식

필자는 또 학생들은 과연 교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현재 우리나라 중국어문학과 및 중국관련학과의 교수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8>

순위 \ 분야	교수중시분야(재학생인식)	응답비율	순위도
1	① 고전문학	752/236	3.18
2	③ 중국어회화	779/236	3.30
3	④ 중국어문법 및 작문	910/236	3.85
4	② 현· 당대문학	923/236	3.91
5	⑧ 중국역사 및 철학	1098/236	4.65
6	⑦ 중국사회 및 문화	1239/236	5.25
7	⑥ 중국정치 및 경제	1463/235	6.22
8	⑤ 성운학, 훈고학 등	1525/236	6.46
9	⑨ 연극, 영화 등 예술	1851/236	7.84

이 결과는 결국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 매우 큰 괴리가 있음을 말해준다. 순위 간극이 크지는 않지만 학생들은 교수들이 고전문학을 가장 중시한다고 여기고 있으며, 비슷한 순위도로 현· 당대문학도 4위로 올려놓았다.

3. 졸업생의 교수관심분야에 관한 인식

필자는 또 졸업생들은 과연 교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졸업생들에게 “대학 재학 때 교육받은 경험상 현재 우리나라 중국어문학과 및 중국관련 학과의 교수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9>

순위	분야	교수중시분야(졸업생인식)	응답비율	순위도
1	③	중국어회화	85/32	2.65
2	①	고전문학	92/32	2.87
3	④	중국어문법 및 작문	99/32	3.09
4	②	현·당대문학	124/32	3.87
5	⑧	중국역사 및 철학	161/32	5.03
6	⑦	중국사회 및 문화	184/32	5.75
7	⑤	성운학, 훈고학 등	210/32	6.56
8	⑥	중국정치 및 경제	214/32	6.68
9	⑨	연극, 영화 등 예술	269/32	8.40

회화와 고전문학의 순위가 근소한 차이로 바뀌었을 뿐 재학생의 의식과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교수들이 중점교육분야를 회화 - 문법 및 작문 - 사회 및 문화 - 고전문학 - 현·당대문학의 순으로 답한 것이나 사회수요분야에 대해 회화 - 문법 및 작문 - 사회 및 문화 - 정치 및 경제 - 역사 및 철학의 순으로 답한 것과 매우 상반되는 결과이다.

즉,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교수들이 회화와 문법 및 작문 등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기타 정치 및 경제, 사회 및 문화 등보다는 고전문학이나 현·당대문학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교과과정 자체가 거의 어학과 문학으로 양분되어 있고, 실제 교수들도 문학강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생긴 인식이라 여겨지는데, 교수들로서도 별다른 항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 결과를 보면 학생과 교수사

이의 인식차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V. 맺음말

이상 교수와 학생, 졸업생 세 주체를 대상으로 중국어문학 교육의 중점 교육분야에 관한 인식, 사회수요분야에 관한 인식, 중시분야에 관한 상호 인식의 차이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세 주체 사이의 적지 않은 간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교수와 학생, 졸업생 세 주체간의 중점교육분야에 관한 인식을 보면 공히 중국어회화 - 중국어문법 및 작문 - 중국사회 및 문화의 세 분야를 차례로 1, 2, 3위로 꼽았다. 이것은 이 세 분야가 학생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사회적 수요도 높아서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할 분야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실제 우리나라 중국관련학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어문학과”라는 명칭은 그다지 걸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교수들의 고민은 실제로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교수들이 강단에 서기까지 교육받고 연구했던 분야는 모두 낮은 순위에 처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관심’이나 ‘사회수요’는 각각 8위와 6위, 8위와 7위에 머문 고전문학과 현·당대문학이 교수들이 생각하는 ‘중점교육’분야에서는 4위와 5위로 올라선 것에서도 그 괴리를 더욱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교수들은 학생들의 관심이나 사회적 수요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지만 또 아카데미즘적인 학문연구의 한 축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중국어문학과가 학생들에게 별 인기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그다지 수요가 없었던 가까운 과거에는 없었던 고민과 같등이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어 자체가 영어와 대적하는 위치에까지 올랐고, 그에 따라 전국 대학의 중국어문학과도 양적인 면에서 국문학과를 제치고 영문과와 대등

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이러한 성장은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에서의 기대치도 높아지게 만들었다. 따라서 학생과 사회적 요구라는 현실과 학문연구라는 아카데미즘 사이에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사회수요분야에 관한 의식에서도 그 고민은 더욱 증폭된다. 교수나 재학생, 졸업생 모두 ‘중국어회화’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을 뿐 아니라 제2순위의 간격도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차례로 중국어문법 및 작문 - 중국정치 및 경제 - 중국사회 및 문화 등을 차순위와 큰 간격으로 답하고 있다. 이처럼 세 주제 모두 사회수요분야라고 꼽은 분야는 실제 교수들의 전공과목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세 주제의 중국어문학 교육의식의 상호차이에 대한 결과에서 극명하게 그 괴리가 부각된다. 먼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교수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재학생은 교수들이 고전문학 - 중국어회화 - 중국어문법 및 작문 - 현·당대문학의 순으로 중시한다고 답했고, 졸업생들은 중국어회화 - 고전문학 - 중국어문법 및 작문의 순으로 중시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 네 분야의 순위 간격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중국어문학과”의 학과 명칭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서, 문학과 어학(회화, 작문을 포함하여)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학생 및 졸업생(사회)이 답한 우선순위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주목할 것은 교수들의 실제 교육의식과 학생들에게 인식된 교수들의 교육의식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교수들은 중점교육분야를 중국어회화 - 중국어문법 및 작문 - 중국사회 및 문화 - 고전문학의 차례로 꼽았고, 또 그 순위 간격도 중국어회화와 나머지 세 분야의 간격이 매우 컸다. 그런데 실제 학생들은 순위 간격의 차이가 거의 없이 고전문학 - 중국어회화 - 중국어문법 및 작문 - 현·당대문학 분야를 교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분야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순위를 통해 양자의 의식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요한 원인은 교수들의 교육의식이 아직 교과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거나 학생들

의 관심도나 사회적 수요에 기인한 교육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교수들의 전공이나 전통적 교육방법 등과 같은 현실여건상 교육의식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것은 이강재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강재는 국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의 전공분포에 대해 중국어학 24.1%, 중국문학 65.2%, 중국학 8.9%라고 했다.<sup>4)</sup> 중국문학 전공자 가운데 현·당대문학 전공자를 제외한 고전문학 전공자는 ‘중문과’가 59%, ‘비중문과’가 52%를 점하고 있으니,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의식의 괴리는 반 이상의 교수들이 고전문학 전공자라는 교육현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교육자인 교수들의 의식과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식 및 사회적 수요가 괴리되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거시적으로는 대학교육의 본질과 목적에서부터 미시적으로는 상업화의 경제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러 군소 대학의 현실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논쟁을 낳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즉, 대학 “중국어문학과” 교육의 본질과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또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러한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고 있는가? 대학의 본질이라는 학문연구를 담당할 특정 학교의 교육목적 특성화는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대학들은 어떤 교육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 만약 학생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목표를 설정한다면 현재의 학과 명칭과 교과과정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럴 경우 아카데미즘적 교육과 연구에 매달려온 대부분 교수들의 자리는 어디인가? 지금이라도 대학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원 교육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sup>5)</sup> 아카데미즘적 학문연구와 사회적 수요의 양자를 포괄하는 과도기적 학과 형태는 그 대안으로서 가능한가?

4) 이강재, <중국어문학 연구·교육자의 현황과 수요 변화의 양상>(《중국문학》 제40집, 2003. 11) <표3> 참고

5) 민정기, <21세기 한국의 중국어문학 대학원 과정은 어떤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중국문학》 제40집, 2003.11) 참고

<參考文獻>

- 권응상, 중국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중국문학》 제40집, 2003.11)  
권석환, <한국의 중국어문학 교육의 문제점과 전망>(한국중문학회 창립  
20주년기념 전국학술대회 논문집, 2001)  
신하윤, <중국고전문학과 한문교육>(《중국문학》 제38집, 2001.8)  
손지봉, <중국문학과 중국어교육의 관련성>(《중국문학》 제38집, 2001.8)  
이선옥, <대학의 이념과 중어중문학 교육>(《중국문학》 제40집, 2003.11)  
이강재, <중국어문학 연구·교육자의 현황과 수요 변화의 양상>(《중국  
문학》 제40집, 2003.11)  
민정기, <21세기 한국의 중국어문학 대학원 과정은 어떤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중국문학》 제40집, 2003.11)  
박정구, <중국어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중국문학》 제40집, 2003.11)  
양희석, <중국어문학 연구자의 중국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중국문  
학》 제40집, 2003.11)  
김월희, <人文敎學의 실현을 위한 제언>(《중국문학》 제40집, 2003.11)  
심혜영, <‘인문학 위기론’의 관점에서 본 중국어문학 교육의 제문제>(《중  
국문학》 제40집, 2003.11)  
류창교, <인문학으로서 중국문학 가르치기>(《중국문학》 제40집, 2003.11 )  
김상호, <서문: 중국어문학 연구·교육자의 역할과 지향점>(《중국문학》  
제40집, 2003.11)

<中文提要>

本文是一篇調查分析有關在韓國中國語文學教育的意識結構、並探索中國語文學教育的新發展方向的論文。筆者將“教授－學生－畢業生”的關係定義為“教育者－受教育者－社會”的關係，並以他們為對象進行了專項調查。主要是

關於中國語文學教育的各種問題。筆者對這次調查結果進行了詳細的分析，分析出來了三者的有關重點教育部門、社會需要部門的意識，以及教育者跟受教育者的有關重視部門的互相認識。從中了解到從事中國語文學教育的教授和學生的一些看法，以及當前古典文學教育的狀況，並對課題和教育方法提出了建設性的意見。

首先，從從事中國語文學教育的教授和學生的角度來看，我們了解到教授們的教育意識和學生們心目中的教授的教育意識是有分歧的。其中最突出的問題就是教授們的教育意識還沒有對其所授課程做出令人滿意的反映，教授們已經認識到學生學習的迫切性，並且認識到要在教育上滿足社會需求，教授們就必須不斷調整教育方法的必要性。此外，由於教授們專業研究範圍的限制，以及受到傳統教育方式的影響，要做到充分、迅速地適應教育新的變化還需要一段時間。

筆者希望通過本文呼籲作為教育主體的教授們，能夠以了解受教育者和社會的這樣教育意識來面對當今教育的現狀及變革，並能不斷地改進教育方法，更好地適應現代教育的需要。

주제어 : 중국어문학교육, 교육의식, 중점교육분야, 사회수요분야, 상호인식

